

“겨울철 강풍·폭설에도 꺼지지 않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D-365 성화봉 공개... 개최지 평창의 해발 700m 고도 상징 700mm 제작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두고 대장정의 시작을 알릴 성화봉이 공개됐다.

강원도의 겨울철 강풍과 폭설에도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9일 평창올림픽 G-1년 언론 설명회를 열고 강릉하키센터에서 성화봉과 성화주자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평창올림픽 성화봉은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의 해발 700m 고도를 상징하는 700mm로 제작됐다.

다섯 갈래의 불꽃 모양을 상단에서 이어주는 ‘X’ 형태의 금빛 배지는 대회 슬로건인 ‘하나된 열정’을 표현했다.

강원도의 겨울철 강풍과 폭설을 고려, 다양한 환경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을 유지하도록 4개로 분리된 격벽 구조로 제작했다.

4개로 분리된 격벽 구조는 바람이 불면 성화봉 불꽃이 격벽 반대 방향의 산소원 쪽으로 이동해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성화봉 상단에 세워진 우산형 캡은 빗물이 버너 시스템 외부로 배출돼 폭우와 폭설 등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성화봉은 회전하며 상승하는 듯한 불꽃의 형상과 개최지의 문화적 특징, 전 세계 5대륙을 하나로 이어주는 올림픽 정신의

메시지를 담아 디자인됐다.

한국 전통 백자에서 모티브를 얻어 곡선미를 살렸고 표면은 흰색이다.

흰색은 눈과 얼음의 추제인 동계올림픽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손잡이 부분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은 디자인 패턴을 사용해 전 세계인들이 성화봉을 여정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불꽃이 닿는 성화봉 꼭대기 부분은 철이고 나머지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됐다.

무게는 1.3kg이다.

이날 공개된 성화봉 주자 유니폼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라 바탕이 흰색이다.

여기에 평창올림픽 성화봉 패턴과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이 어우러졌다.

유니폼의 등과 소매 부분은 발수 원단을 어깨와 앞부분은 방수원단을 활용해 기능성을 극대화했다.

충전재로 보온 기능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소재가 사용됐다.

성화봉송의 긴 여정과 변화하는 기상 상황 속에서 달릴 주자를 배려해서 만든 것이다.

성화봉 제작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김영세 디자이너와 1988 서울올림픽 성화봉을 제작했던 (주)원화가 참여했다.

성화봉송 주자 유니폼은 평창올림픽 파트너인 영원이웃도어가 제작했다.

성화는 고대 올림픽 개최지인 그리스에 서부터 내년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개·폐회식까지 전국을 순회한다.

이날 변종문 조직위 알파인스키 종목 담당관과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으로 조직위 쇼트트랙 종목 담당관을 맡고 있는 변천사가 직접 성화봉송 주자 유니폼 모델로 나섰다.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은 프리텐딩 파트너인 코카콜라, 삼성전자, KT가 참여한다.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성화봉송 노선은 따로 일정을 잡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올림픽 성화봉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우수한 기술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세계인들에게 올림픽의 감동과 환희를 전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꺼지지 않는 불꽃과 모두의 하나된 열정으로 지구촌의 시선이 평창으로 집중되도록 성공적인 성화봉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퇴겨여왕’ 김연아가 입장권 예매 시연을 한다.



공개된 평창올림픽 성화봉은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의 해발 700m 고도를 상징하는 700mm로 제작됐다.

/김민근 기자

FIFA U-20코리아 월드컵 티켓 판매 홍보 돌입

전북도는 청년 직원, 산하 사업소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FIFA U-20코리아 월드컵 2017 티켓 판매 홍보에 돌입했다.

U-20월드컵 대회는 마라도나, 메시 등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을 배출한 스포츠 빅 이벤트로 6대륙 24개국 6,000여명이 참석하며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월 11일까지 열린다.

특히, 전주는 개막전을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가 42전까지 최대 4경기가 예상되는 대회 중심 도시로 전북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도청 사거리 대형 전광판 및 도청내 층간 정보게시판, 실국·사업소에 티켓 예매 방법 등 구입 방법, 대회 설명지료를 보내는 등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매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티켓 예약은 지난 1월 2일부터 인터넷(kr.fifa.com/u-20ticket)과 콜센터(1544-1555)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 티켓을 살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홍 기자



전북현대, 브라질 출신 마졸라 영입

전북 현대가 새 외국인 선수로 브라질 출신 마졸라를 택했다.

전북은 9일 마졸라와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상파울루FC 출신인 마졸라는 일본 우라와 레드와 중국 항저우 그린타운 등에서 아시아 무대를 경험했다.

지난 시즌에는 중국 구이저우 창청에서 27경기 14골을 기록하며 팀이 슈퍼리그로 승격하는데 일조했다.

마졸라는 신장 176cm로 크지 않지만 힘과 기술, 슈팅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빠른 발을 활용한 돌파로 수비진을 파고드는 플레이가 강점이다.

마졸라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다. K리그를 경험해 보고 싶었고 내 능력의 한계를 보여드리고 싶다. 전북의 이념에 걸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루 빨리 시즌이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팬 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은 마졸라의 영입으로 공격 루트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김민근 기자

순창군, 올해 국내 최대규모 정구대회 유치 확정

선수단 1500여명 협회장기 정구대회 등 메이저급 3개 숙박업·식당 등 지역 상권 미치는 파급 효과 클 듯

순창군이 올해 국내 정구대회 가운데 역사가 있고 참가선수단이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메이저급 3개 대회 유치를 확정했다.

군이 올해 유치를 확정된 대회는 제38회 협회장기 전국정구대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한국주니어대표 최종 선발전으로 최근 대한정구협회(회장 이계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협회장기 전국정구대회는 참가 선수단만 1,500여명에 달한다.

3월 중 6일 동안 경기가 진행돼 1,500여명이 6일 동안 순창에서 머물며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숙박업이나 식당 등 지역 상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은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고, 한국주니어대표 최종 선발전

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과, 한국주니어대표 최종 선발전은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현지 적응 등을 이유로 순창을 방문하는 전지 훈련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유발되는 경제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여 지역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이처럼 순창군이 협회 및 연맹체 대회를 매년 8개 이상 유치 실적을 거두는 이유는 실내 코트장 8면과 다양한 경기시설 등을 갖춘 경기인프라와 함께 스포츠 마케팅 관계자가 대회 유치를 위해 대한정구협회 연맹체 그리고 정구대회 경기장을 수시로 찾아 순창의 경기장 시설 및 운영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관계자를 설득한 결과다.

지난해 44개 대회 유치, 7만 6,000여명 방문 숫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체육공원사업소 오근수 소장은 “올해 정구대회 메이저급으로 꼽히는 3개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스포츠 대회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앞으로도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가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